

강성의 회장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대표회장 취임'



강성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건축단체연합(이하 FIKA)은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지난 12월 17일 18시 건축센터 대강당에서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등의 건축계 인사를 비롯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상정 위원장,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지난 1년간 FIKA 대표회장이었던 서치호 대한건축학회 회장의 이임사에 이어 강성의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신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비추어 우리 건축계에 만연된 기획설계업무에 대한 무보수 무한서비스 업무라는 고질적인 병폐 한 가지를 고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실천에 모든 건축계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획설계업무계약서를 추가로 제정 배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2013년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해로 앞으로의 우리 건축계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2017 UIA 세계건축대회도 FIKA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FIKA가 여러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계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더 더욱 하나된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고 말했다.

FIKA(Federation of Institute of Korean Architects)는 건축계를 대표하는 건축 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가 WTO관련 국제 협상 및 UIA 등의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편, 건축계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1년 2월에 설립한 기구이다.

주거해부도감 (이미지 1컷)

마스다 스스무 저 | 김준균 역 | 204쪽 | 더숲



신간『주거해부도감』은 집의 구조와 설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각도를 새롭게 바꾸어 주는 독특한 건축책으로, 2009년 11월에 출간된 이후 줄곧 일본 아마존 건축 분야에서 1위를 지켜온 장기 베스트셀러다. 그리고 건축책으로는 드물게 중국, 대만 등 여러 국가에도 현재 판권이 수출된 책이다.

이 책은 여느 건축책들과는 커다란 차별점을 갖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도감의 형식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택설계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 특유의 재미있는 비유와 설명으로 건축의 근본을 충실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삶과 건축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려운 건축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550점이 넘는 작고 따뜻한 일러스트와 담백한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도 건축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승효상 저 | 284쪽 | 컬처그라피



신간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는 '빈자의 미학'이라는 건축철학으로 유명한 건축사 승효상이 여행길에서 만난 건축과 그것이 이루는 삶의 풍경들을 기록한 인문 에세이다. 건축사의 여행이라는 주제를 다룬 이 책이 인문서인 이유는 이것이 전문적인 건축 이야기나 여행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자가 그간 여러 지면에 연재했던 글들과 이전의 기록들을 묶어서 새롭게 정리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여러 권의 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살펴해 온 승효상의 건축철학이 집약되어 있는 동시에 문필가로도 이름 높은 저자의 문학적 향취를 만날 수 있다. 간결하고 담담히 써내려 간 문장 안에 담긴 사유의 묵직함은 오랜 여운을 남긴다. ■

바로잡습니다

본지 2012년 11월호(523호)의 39쪽 '심사총평-준공건축물부문'은 준공건축물부문 사회공공부문의 심사총평이며, 작성자는 2012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심사위원 '김영섭 성균관대학교 교수' 로 바로잡습니다.